

파나마 답사 보고서

답사기간 : 2018/11/22(목) - 11/30(금)

답사자 : 장웅준 다비드

1. 출국- 파나마 입국

1) 국제선 기내 및 수하물

- 100ml이하 용기 10개 이하, 20cm*20cm이하 투명 지퍼백 안에 다 넣어서 **인당 1개 가능**
- 캔 통조림류는 반입 안됨. 수하물로 부쳐야함
- 가끔 상황에 따라 들고 갈 수는 있지만, 중요한 물건은 모험 안하길 추천
- 예) 한국에서 출국 때 100ml이하 통조림은 기내반입이 안된다고 했으나, 프랑스에서 파나마 갈 때는 통과(상황에 따라, 검사자 판단에 따라 달라짐)
- 파리-파나마 구간 보안 검색대에서는 액체류 지퍼백을 밖으로 빼내어 검사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함
- 면도기, 손톱깎이는 기내반입 가능했으나, 가끔 안 될 때도 있다고 함
- 귀중품, 현금은 수하물로 보내지 말 것
- 현금, 귀중품의 경우 파나마에선 가끔 없어진다고 함, 통째로 없어지는 수도 있음

2) 입국 심사대

- 입국 시 화내거나 큰소리치면 입국 거부될 수 있으니,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할 것
- 파리-파나마 구간은 신발까지 벗어야 할 수도 있음
- 육로 입국 시 매우 까다롭고 엄격. 짐 다 풀어야하며 입국 거부될 수도 있음

3) 항공사

- 에어프랑스 : 프랑스 대표 항공사, 네덜란드항공사와 합병하였고, 파나마 직항이 있음. 출발 지연이 많으나 지연되어도 도착시간은 웬만하면 맞춤

4) 파나마 도착(1.공항 사진 참조)

- 지하철 2호선 공사 중(세계청년대회를 위해 대회 전 완공 목표)
-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함
- 공항에서 시내오는 버스 배정 추진 중
- 일반 시내버스를 정류장보다 더 공항 안(물류센터)쪽으로 들어와 데려갈 수 있게 추진 중

2. 파나마 개요

1) 화폐(실물 참조)

- 상용화폐는 20달러 이하 달러와 발보아
- 달러와 발보아는 가치가 같음
- 1달러는 지폐, 1발보아는 동전
- 잔돈 거슬러 줄 때 1달러 지폐로 줄 때도 있고, 1발보아 동전으로 줄 때도 있음
- 1, 5달러 지폐와 25센트가 가장 많이 사용됨(유료 화장실도 대부분 25센트)
- 20, 50, 100달러는 잔돈받기가 어렵고, 가끔 신분확인을 하기도 함

2) 전압

- 전압은 옛날 우리나라 110볼트와 같음, 120볼트이고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명 돼지코나 여행자용 멀티플러그를 사용하면 됨

3) 도로(2.도로사진 참조)

- 인도 차도 구분이 잘 없음
- 가끔 육교와 신호가 있음
- 대부분 무단횡단을 함. 경찰은 무단횡단을 잡는게 아니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줌
- 밤에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, 총기가 있으므로 무리를 지어다녀도 위험. 자제할 것

4) 교통(실물 및 3.버스와 택시 사진 참조)

- 버스의 중심은 알브룩. 모든 버스가 알브룩에서 출발하여 목적지로 다른 길을 통해 감
- 일반 시내버스는 교통카드로만 탑승 가능
- 교통카드 없을 시, 없으면 타는 사람이나 타 있는 사람에게 교통카드를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고 우리는 찍어준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됨. *이 나라는 이러한 관례가 있음.
- 버스비 0.25달러, 지하철 0.35달러
단, 옛날 버스나 봉고같은 것은 흥정해야 하며 최소 1달러 이상 받음
- 버스 배차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매우 길어서, 버스 한 대 놓치면 다른 버스를 타는 것이 좋음
- 목적지에 따라 번호가 비슷하고, 다니는 길에 따라 C, E, V, K, M, F 등 기호가 비슷함
- 버스-지하철은 환승이 안되고, 버스끼리만 환승 가능(안되는 정류소도 있음)
- 환승센터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돈을 내야 들어올 수 있음
- 일방통행 길이 많고, 우리나라처럼 버스 내린 곳 반대편이 정류소가 아닌 곳이 많음
- 시내 교통은 매우 차가 많고 많이 막힘. 30분거리가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음
- 출근시간은 빠르지만 시내는 항시 막히고, 퇴근시간은 3시전후부터 시작되어 더 막힘
- 공휴일은 눈에 보이게 한산함
- 택시는 흥정해서 가격을 정한 뒤 탑승. 관광객에게는 대부분 비싸게 부름

5) 화장실

- 쇼핑몰이나 식당이외에는 화장실 찾기가 힘들(유럽보다 더 없음)
- 쇼핑몰의 중심 부근 화장실은 돈을 내야하는 곳도 있음

6) 음식(4.음식 사진 참조)

- 파인애플, 파파야 같은 열대과일, 맥주가 쌘
-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아 공산품은 비싼 편
- 패스트푸드는 우리나라와 가격이 비슷
- 저렴한 식사 5달러 이하 : 노점상, 일반 식당
- 쇼핑몰 일반 음식 혹은 체인점 10달러 내외
- 쇼핑몰 고급 음식 혹은 레스토랑 20달러 내외 혹은 이상

3. 파나마 주요 장소

1) 프란치스코 성당(5.구시가지 사진 참조)

- 교리교육장소로 유력한 프란치스코 성당
- 매력적인 카스코 안티구오 안의 아름다운 성당이지만 구시가지 안에 있어 교통이 불편
- 일방통행 외길에 좁은 길이라 버스가 못들어가서 수산시장 입구에서 걸어가야 함
- 어두워지기 전에 구시가지에서는 빨리 나오는 것이 좋음

2) 신따 꼬스따 해변(6.신따 꼬스따 해변 사진 참조)

- 이번 파나마 세계청년대회의 개막미사, 교황님 환영식, 십자가의 길 등 폐막미사를 제외한 대부분 대회와 큰 행사가 치러지는 장소(하지만 장소가 바뀔 것 같음)
- 굉장히 긴 중심가의 해변
- 아직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았음(11월 기준)
- 차량 통행이 많아서 무단횡단이 위험하고 5곳의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것이 안전

3) 쌍뚜아리오 성당(6.신시가지 사진 참조)

- 한국 순례자들의 숙소로 유력한 성당(안 될 수도 있음)
- 성당도 훌륭하고 옆에 교육관 같은 곳도 있어서 자기도 괜찮을 것 같음
- 주변에 위험요소는 없어 보이지만, 밤에 다니는 것은 금물
- 한인미사는 없지만, 교민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리는 성당

4) 돈보스코 성당, 카르멘 성당(6.신시가지 사진 참조)

- 최근 구시가지의 파나마 대성당과 함께 바실리카로 승격된 돈보스코 성당과, 카르멘 지역에 있는 카르멘 성당

5) 싱코 데 마요 지하철 역(7.구시가지가는 길 사진 참조)

- 파나마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품고 있지만, 대중교통으로 교리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면 대부분 거쳐 가야하는 장소
- 지하철 싱코 데 마요 역과 롯데리아 역 사이 골목길은 절대 출입 금지
- 큰 길만 다니고 저녁이후에 다니는 것은 피해야 함

6) 파나마 운하(8.파나마 운하 사진 참조)

- 알브룩에서 미라플로렌스락까지 C810이 운행하지만 배차시간이 1시간 정도이고, 배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해서 가야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음
- 들어오는 배와 박물관을 보기 위해서는 관광객 입장료가 20달러

7) 파나마 비에호(9.비에호 사진 참조)

- 비에호는 시내버스 C640, C641, C642가 시내에서 운행하지만 교통편이 좋지 않고, 멕시코의 체첸이어나 떼오티와칸처럼 크지는 않음
- 현지인 빈민가를 지나가므로 주의할 곳

8) 아마도르(10.아마도르 사진 참조)

- 아마도르는 파나마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중 하나.
- 구글 지도에는 버스표시가 안되어 택시타고 갔으나, 걸어다니며 본 결과 C850버스 한 대가 30분 배차간격으로 있었음
- 서양인들의 휴양지라서 특별히 볼 것은 없고, 조용하고 편안함.
- 조깅, 자전거 등 운동하기 좋음

9) 쇼핑몰(11.쇼핑몰 사진 참조)

- 시원하고 다니기 편한 곳은 언제 어디서나 쇼핑몰
- 파나마에서 가장 큰 알브룩 쇼핑몰, 대표적인 멀티프라자, 시내에 있는 멀티센트로, 북쪽의 엘도라도 쇼핑몰 등등 많이 있음

10) 파나마 커피(4.음식 사진 참조)

- 유명한 파나마 커피 : 듀란 카페(파나마의 국민커피, 내수용, 수출안함)
- 유명한 파나마 커피 : 게이샤(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음)
- 마트에 듀란 카페 약 8달러, 공항 면세점 약 20달러
- 마트에 제이슨 게이샤 약 15달러, 공항 면세점 약 40달러

11) 봉쇄수녀원(12.봉쇄수녀원 사진 참조)

- 갇혀있는 공간에서 수도생활을 하는 수녀님들
- 파나마 신학교와 연계하여 1년에 한번 만남의 행사를 진행
- 1년 동안 갇힌 곳에서 수녀님들이 그 신학생을 위해 기도하고, 1년에 한번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,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음

4. 파나마에서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스페인어(특수문자는 생략)

1) 부를 때 호칭

젊은이, 청년, 학생 : Joven

아줌마, 이모, 여성 : senora, dona

아저씨, 삼촌, 남성 : senior, don

2) 인사 및 기초회화

안녕하세요(친구들에게) : Hola!

안녕하세요(정중히) : Buenos dias!(아침), Buenas tardes!(오후), Buenas noches!(저녁,밤)

네 : si

아니요 : no

실례합니다 ; Perdon, Permiso

죄송합니다 : Disculpe

천만에요 : De nada

감사합니다 : Gracias

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: Muchas Gracias

안녕히가세요 : Hasta luego!, Chao!

잘지내니? : Como esta?

잘지내 : Esta bien

좋아! : Bien!

스페인어 못해요 : No hablo espanol

영어할줄아세요? : Puedes hablar ingles?

* 세뇨르 s가 대문자이면 하느님, 예수님, 주님

* 주의! seniorita는 아가씨이지만, 함부로 쓰다가 실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안쓰길 추천